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 음악회
1919년 보성전문, 시대·사회·문화

“1919년 3·1운동의 원천, 보성전문
그 자랑스런 역사를 학문으로 조망하고 음악으로 새기다”

제2부 음악회 2019. 11. 9.(토) 18:00~18:40 CJ법학관 지하 1층 베리타스홀

“3·1운동 시대 보성전문, 천도교, 음악”

진행 류경선 교수

소프라노 임채빈 / 테너 이희창 / 피아노 박사라



일시: 2019년 11월 9일(토) 오후6시

장소: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

진행: 류경선 교수 (고려대 교양교육원)

애국가

환영가

애국청년단

형제별

어린이날 노래

무궁화 강산

이순신

- 연주자 약력 -

임재민 (Soprano)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수석졸업
불가리아 바르나 오페라하우스 세빌리아 이발사 로지나 연주

이희창 (Tenor)

Vianden in Luxembourg Festival 및 Saarburg in Germany Festival 과정 수료
한·중 교류 오페라 콘서트 협연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

박사라 (Piano)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졸업
현) 장안대학교 외래교수

애국가

김인식 작사의 <애국가>.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인 동시에 찬송가 선율에 가사를 붙여 만든 것이다. 1910년 6월 『普中親睦會報 1호』를 통하여 발표가 되었다. 3·1운동 직후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의 <애국가>로도 불렸다.

환영가

작사자 미상. <HAPPY DAY>라는 찬송가에 가사를 붙인 것. 보성전문학교의 제2대 교주인 이중호 선생이 대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의 관계자들이 만들어 부른 노래. 원 가사는 1909년 5월 보성전문학교에서 발행한 『法政學界』 제23호에 수록되었다. 이후 만주에 설립된 민족학교에서 이 노래를 '애국창가'로 가르쳤다.

애국청년단

작사자 미상. 헨리 워크(Henry Clay Work)가 작곡한 미국 남북 전쟁 때의 군가이자 찬송가의 선율에 가사를 붙인 것. 국권을 상실했을 때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이 불렀던 '애국창가'. 만주에 설립된 민족학교에서 이 노래를 '애국창가'로 가르쳤다.

형제별

방정환 작사·정순철 작곡. 우리나라 창작 동요의 효시. 우리나라의 동요운동은 3·1운동의 영향으로 보성전문학교 출신인 방정환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 동요라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탄생되었다. 동요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보성전문학교 출신이 적지 않다.

어린이날 노래

김기전 작사. 헨리 워크가 작곡한 미국 남북 전쟁 때의 군가이자 찬송가의 선율에 가사를 붙인 것. 최초의 <어린이날 노래>. 김기전은 보성전문학교 출신으로, 방정환과 함께 동요운동을 주도하였다.

무궁화 강산

유석조 작사·작곡. 1924년에 작사·작곡한 '애국창가'. 유석조는 보성전문학교 출신으로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창가운동을 전개한 사람이다. 특이하게도 작곡도 할 수 있어 직접 작곡한 작품도 여러 편 남겼다.

이순신

작사·작곡 미상. 인촌 김성수 선생이 교열자로 참여한 『東西偉人唱歌』(1921년)를 통해 발표된 곡. 일제 식민지 치하임에도 불구하고 왜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을 예찬한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는 것이 특이하다. 인촌 선생님 '애국창가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